

# “‘동도지사’ 희생 위에 오늘을 건설”

## ‘출협’ 탄생 전후의 출판계 (1945~1948) ③

### 잡지사도 회원에 포함

출협 발족 7개월만에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조벽암은 그렇다치고, 또 한사람의 부위원장인 최영해는 당시 34세의 연소기에(年少氣銳)한 활동가로 자신의 정음사 사옥 20평과 집기 일체를 협회에서 쓰도록 선뜻 내놓았을 정도로 출협 일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자신보다 12세 연장인 김창집 위원장과 더불어 초창기 출판업계의 기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기억되어 마땅하다.

한편, 김창집 위원장은 평양 숭실전문 출신으로 해방전 서울 청량리 소재 시조사(時兆社) 편집국장을 지내다 해방후 고려문화사 편집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출판계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남다른 포용력과 친화력으로 57년까지 만10년간 협회 회장을 연임했는데, 회장 10년 연임의 대기록은 을유문화사 정진숙(鄭鎭肅) 사장과 두 사람뿐이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당시 출협의 회원자격인 ‘조선에서 현업중인 출판업자’ (회칙 제5조)의 범위에는 ‘일간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출판업자’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출판사만이 아니라 주간 및 월간 잡지사들도 상당수가 출협에 가입하고 있었다. 창립 당시 출협 회원은 123개사였는데, 그중 잡지사가 얼마나 됐는지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참고로, 47년 8월말 현재 서울에만 441개 (전국은 519개)의 출판사가 있었고, 잡지는 주간 12종, 월간 124종 등 모두 144종이 있었다. 《조선연감》 1948년판, 조선통신사)

### ‘출판의 자유 보장’ 요구

출협은 발족하기가 바쁘게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47년 3월, 그때까지 상무부(商務部)에서 관장했던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허가권이 공보부로 넘어가면서 군정당국의 출판정책이 ‘통제’로 치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해 3월 27일자 ‘공보부령’ 제1호로 나온 ‘정기간행물의 신규허가 정지령’이었다. 또 출판물에 대한 단속도 까다로워져서 잡지 《민성(民聲)》의 압수처분, 임화(林和)의 시집 《찬가(讚歌)》를 비롯한 단행본들의 압수 또는 삭제와 잇따라 출판·문화계를 긴장케

출협 초창기에 주류를 이뤘던

출판사들 가운데 한둘만을 빼고는

모두가 반세기의 격랑 속에

침몰되고 말았다. 특히

일제 때부터 명맥을 지켜온

박문·한성도서·정음사 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했다.

이에 출협은 3월말 ‘공보부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협회 임원들이 공보부를 방문,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 ▲제지공업을 확충할 것 ▲지류(紙類) 수입을 시급히 할 것 등 다섯 항목을 진정했다. 《동아일보》 47. 4. 1)

이 진정에서 보듯, 종이문제야말로 1947년의 출판계가 여전히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였다. 《조선연감》은 이 해의 ‘출판’ 리뷰에서 당시의 종이 사정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현 출판계의 난관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용지난이다. 남조선에 있어서 1개월간 신문·잡지·출판 용지로 대략 5만연(連) 가량이 필요하고 기타 교과서·관공서·회사용지 및 일반민간 용지를 합하면 10만연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남조선내 17개 제지공장의 생산량은 1개월 5천연 미만으로 겨우 그 10분의 1도 못되는 형편에 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용지가격은 엄청나게 뛰어나고, 수입외지(外紙)는 벌써 국산품을 압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백원 정가를 매겨 책을 판 돈으로 그 책에 소용된 분량의 종이를 살 수 없으므로, 책을 내지 않고 차라리 종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정도였다(조풍연, ‘변민하는 업자-출판계의 현상과 장애’, 《동아일보》 48. 2. 8). 그러나 용지난은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문제인데 비해, 일부의 일서(日書) 출판 행위는 협회 입장에서 큰 골칫거리였다.

해방 직후는 그야말로 ‘종이에 먹칠’ 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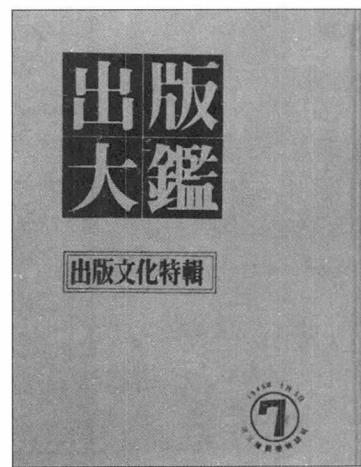
출협 창립소식과 해방직후의 출판계 정황을 보도한 신문기사들.

도 잘 팔리던 시절이었는데, 원고 구하기가 어려운데다 한글조판 시설을 갖춘 인쇄소도 태부족이었던 터라, 일부 업자는 일제시대에 출판된 일문판 도서를 다시 조판해서 간행하는 일이 잦았던 것이다. 이는 민족적 양심에 비추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출협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문판 발행을 배격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서적도매상조합과 손을 잡고 출협의 승인이 없는 발매를 못하도록 했다.

48년 10월 <반민족 및 친일파 거두의 저서출판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그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친일파의 거두’란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을 지목한 것이 분명하데, 가령 해방 직후에 이미 춘원의 소설 《사랑》 《무정》과 편지글투교본인 《춘원서간문법》 등이 재간돼 나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대한 자성(自省) 비슷한 것일 터이다. 이때는 정부가 수립되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 (9월 22일) 된 다음달이었다.

### 이데올로기 서적 범람

이런저런 어렵고 고생스러운 형편에서도 신간발행량은 해마다 늘어나 46년의 552종, 47년의 957종에서 48년에는 1,176종으로 2년만에 배로 늘어났다. 아직 <한국십진분류법>이 마련되기 전이어서, 요즘의 ‘사회과학’이 정치·법률·경제·사회로 나뉘고, ‘문학’ 하나만도 소설·희곡, 시가(詩歌), 고전국문학, 기타문학으로 세분되어 통계가 잡히고 있음은 흥미롭다. 또 교과서와 참고서



출협 기관지(출판문화)의 별책으로 발행된 《출판대감》(49. 4. 15). 이 책에는 해방 4년만에 발행된 약 1,700종의 도서목록이 실려 있다.

발행량이 제일 많고 소설·시집 등 문학도서와 아동도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도 시사적이다. 그밖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치·역사물도 두드러지는 것은 당시 독서층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별항 통계표 참조)

49년 4월, 출협이 기관지 《출판문화》의 별책으로 발행한 《출판대감》(B5판 108면)에는 798개에 이르는 출판사 일람표와 함께 해방 이후 3년남짓 동안에 출간된 약 1,700종의 도서목록이 실려 있어 ‘해방공간’의 출판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 가운데 특히 사회과학 분야나 철학 부문에는 이데올로기 서적이 상당수 올라 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전6권·서울출판사)을 비롯, 《레닌 선집》(전16권·조선말스엔겔스 레닌연구소), 《스탈린 선집》(전8권·노농사), 《모택동·주뎬 선집》(신인사) 등

## 출판은 캐릭터 상품이 아니다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도서출판 통계  
(1946~1948)

분 야	연 도	1946	1947	1948
정 치		43	80	49
법 률		5	10	24
경 제		18	21	19
사 회		75	22	29
산 업		12	15	16
철 학		7	17	30
종 교		16	20	28
교 육		5	35	—
역 사		43	42	27
전 기		16	22	25
소설, 희곡		29	88	123
시가(詩歌)		19	34	42
고전국문학		7	1	16
기타 문학		22	25	64
미술, 음악		4	15	23
운동, 취미		1	3	2
아 동		77	75	98
이학, 수학		9	20	1
의 학		3	6	5
교과서		26	123	209
참고서		—	111	227
사 전		6	10	17
외 국 어		9	11	14
기 타		100	151	88
계		552	957	1,176

\*자료 : 《대한민국 통계연감》(1954, 내무부 통계국)

선집류와 사상서가 수두룩하다. 이것들은 거의 모두 좌익계 출판사들이 내놓은 것이다.

## 정음·율유 등은 국학진흥에 주력

그들에 비해 정음사나 율유문화사를 비롯한 주류 출판사들은 국학(國學)관계 출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정음사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을 국판크기로 영인해 《이조실록》이란 이름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 《조선과학사》(홍이섭) 《조선문학사》(김사엽) 《조선문화총화》(홍기문) 《국어학논총》(이극로) 《열하일기》(김성칠) 등 간행물의 태반을 국학관계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율유문화사는 해방 이듬해에 벌써 정지용의 《지용시선》, 박목월·조지훈·박두진의 《청록집》, 이희승의 《조선문학연구초》,

이만규의 《조선교육사》 등을 내놓고 있다. 이어 47년에 들어서는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제1권을 펴낸 것을 필두로, 손진태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를 첫째권으로 하는 '조선문화총서'를 발간하기 시작, 47~48년 사이에만도 이상백·고유섭·이병도·조윤제·김상기·이승녕·함화진 등 국학 각분야 태두들의 저서를 출판해냄으로써 단연 발군의 실적을 쌓고 있다.

아무튼 47년까지는 글자 그대로 백화제방·백가쟁명의 혼란기였던데다 군정 당국에서도 "비교적 중립주의를 취함"으로써 출판의 자유를 거의 무한대로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48년 정부가 수립되고 공보처 출판과가 출판행정을 통괄하게 되면서부터 "약간의 간섭주의가 실시"(최영해)되었고, 이듬해인 49년 10월 남포당을 비롯한 공산주의 계열 정당·단체가 불법화되면서 좌파 출판사들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출판사 수는 계속 늘어나 47년 8월에 519개이던 것이 48년말에 792개, 49년 3월에는 847개로 1년반 사이에 300여개나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등록출판사의 누계일 뿐이고, 실제로 소규모나마 출판활동을 했던 곳은 200개 안팎에 불과했다.

출협 초창기에 주류를 이뤘던 출판사들 가운데 한둘만을 빼놓고는 모두가 반세기의 격랑 속에 침몰되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세월무상이 아닐 수 없다. 그중에도 일제시대부터 명맥을 지켜왔던 한성도서·박문출판사가 우여곡절 끝에 57년에 폐업하고, 근년에 정음사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최영해 부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술회(앞의 글)는 지금 읽어도 가슴을 적신다.

"우리는 이 4년(1945~48)동안에 많은 동지를 잃었다. 그 동지들은 많은 재물과 많은 노력을 희생하였는데, 그 액수와 그 인원수로 말하면 수억원에 달할 것이요, 이로 인하여 살림을 경진(傾盡:다 기울여 없앴)한 사람이 수백명에 달할 것이다. 우리는 실로 이와 같은 동도지사(同道之士)를 희생시키고 금일에 출판계를 건설한 것이다." <끝>

◇ 고침 = 지난해 조벽암 부위원장 관련기사 중 "당시 40대 초반으로 추정"은 그의 생년이 1908년이므로 40세로 바로잡습니다.

— 이승우 주간

## 읽고 보관하며 권할 책과

## 읽고 잊어버리며 굳이

## 권할 일이 없는 책의

## 구분이 어렵다.

## 우리 출판은 점점 더

## 재미있는 읽을거리 만들기의

## 기능에 떨어지고 있는지

## 모른다. 하지만 출판은

## 캐릭터 상품이어선 안된다.

이 시대는 캐릭터시장의 시대라 할 만하다. 스티븐 스피버그는 영화 《주라기 공원》 1편으로 20억달러 시장을 만들어냈는데, 이 중 10억달러가 캐릭터시장에서 번 것이다. 신발·런닝셔츠에서 온갖 장난감·노트북에까지 컴퓨터공용의 저작권팔기가 이루어졌다. 최근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를 다시 한번 팔고 있다. 10여분 분량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옛 《스타트랙》 관람자들을 되살려내고 있다. 이 역시 캐릭터시장의 터전을 만들자는 의도이다.

이 현상을 좀 점잖아 보이는 말로는 '이미지 산업'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소재들, 어떤 생산품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에너지까지 포함한 새로운 상징조작과 이미지화가 곧 오늘날 정보산업의 새 단계라고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이미지는 앞으로 거대산업이 되리라는 확신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를 파는 캐릭터시장의 확대는 자명하다.

문제는 이 시장에서 출판의 입장이다. 할리우드 영상산업에서 출판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어떤 소재의 시장을 점점하는데 있어 영화를 만들어 보는데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나 소설 출판물로 발행하면 별로 큰 돈을 안들이고도 반응을 알아볼 수가 있다. 스피버그 최초의 성공작 영화 《조스》가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조스》 아이디어를 소설로 써서 팔아 본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스티러작품들은 아예 소설쓰기를 영화시나리오 형식으로

바꾸기도 했다. 소설이지만 영화장면을 설명하는 듯한 서술임을 웬만한 독자라면 곧 알 수 있다. 이 경우 출판이라고 하기는 좀 어색하다. 출판 입장에서 따지자면 출판형식의 선전문이나 장사하는 길땀기 리트머스용지 같은 것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새로운 산업의 장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최근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의 캐릭터상품 같은 출판물에는 이견이 있다. 예컨대 어떤 지식을 연예인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또는 TV프로에서 알려진 인물이면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야기 소재가 무엇이든 곧장 책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고 영화와 함께하는 소설 같은 것은 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한국영화의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시도의 출판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런저런 온갖 출판물이 있는 것으로 치부하면 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캐릭터상품 같은 출판물은 그 덩어리가 시장의 중앙에서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확대된 양은 그간 있어오던 문학적 에세이류까지 밀어낸 것처럼 느껴진다. 캐릭터는 있지만 캐릭터의 실체는 없고 캐릭터 형식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은 허구의 문화이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문화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강조되는 읽기의 심화, 출판의 존재의미들을 훼손하는 현상이다.

더 답답한 것은 책의 형태를 갖췄으므로 이 캐릭터상품적인 어떤 책들은 추천도서목록에도 무난히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읽고 보관하며 권할 만한 책과, 읽고 잊어버리며 굳이 권할 일이 없는 책의 구분을 해주는 작업이 있어야겠는데 이 역시 우리의 관행상 어렵다. 그러니 점점 더 출판은 그저 재미있는 읽을거리 만들기의 기능적 방법으로 떨어져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판은 캐릭터 상품이어서는 안된다. ❖